

2015.3.27

공무국외여행심사회의록

(제 10호)

간 사	위 원 장

※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6조에 의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회의록

안 건	1. 공무국외여행계획안 1	
회의 일시	2015. 3. 27(금) 11:00 제2회의실	
심의 위원 (7 명)	참 석 (6명)	비고
	위원장 이명원	불참위원 정성철
	위원 홍순현 임말숙 김재선 이은경	
	문정란	
	간 사 김명룡	
의 결 결 과	사무직원 김성민	원안가결
	속 기 사 이동수	

1. 공무국외여행계획안

○위원장 이명원 (11시 11분 회의시작)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뵙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진행했던 공무국외연수와 연계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과의 이런 기회를 만들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좀 더 투명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팀장께서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의정팀장입니다.

1페이지, 연수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수목적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발칸3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장·단점 파악으로 해운대구의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과 방문하는 나라의 대중교통, 관광인프라 등의 도시기반시설 등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해운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와 비슷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을 방문,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예를 들면,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호수국립공원 트레킹을 통하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해운대 달맞이 길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아드리아해안의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 트로기르를 방문하여 해안선 등의 관리방안을 해운대구와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수동기 및 배경입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천년 이상 된 오래된 도시로서 관광인프라가 발전한 곳으로, 세계일류도시이며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와의 발전방향 접목 방법을 찾아보고 특히, 아름다운 해안선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들의 해안 관리방안,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대중교통 연계방안 등을 비교 분석하며 지방자치 및 의회의 뿌리가 깊은 도시인만큼 지방의회 운영사항과 우리 구의회에 도움이 되는 발전 시책을 계발하고 발칸3국의 관광 및 홍보정책을 수집, 해운대구와 비교 검토하여 해운대구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을 연구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에 걸맞은 자치의회 구현을 위해 이번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국가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로 연수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6박 8일간입니다.

연수 참여자는 의원 16명, 직원 3명으로 총 19명이며, 대상자 명단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연수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연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연수일정은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으로 크로아티아 의회 등 5개 기관을 방문하며, 의회제도 발전 과정과 운영사항 등을 비교 검토하고 의정활동 활성화와 각종 재래시장, 지역 특성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과정 등을 수집하여 해운대구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슬로베니아 블레드 지역을 방문, 자연을 보존하면서 관광 상품화 하는 현장을 보고 관광정책 및 자원개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달맞이 길에 대한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검토하고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을 방문, 트레킹을 통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와 달맞이 길 산책로인 문탠로드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해운대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안선과 항구 등이 어우러진 ‘두브로브니크’, 아드리아 해안의 아름다운 세계문화 유산인 ‘트로기르’, ‘스플리트’를 방문, 해안관리를 통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의 추진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해운대구에 접목하고자 하며, 지역특성 중 재래시장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도 비교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각 도시별 교통시설과 도시환경 관리방안에 대해 현장 조사하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실태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도시운영 실태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해운대구에 접목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폭넓은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인별 역할 및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연수자들에게는 크게 3개의 정책과제를 정하고 참가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활성화 분야에는 타 도시 지방자치와 의회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 우리 구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이문환 의장, 이명원 부의장, 임말숙 의회운영위원장, 정성철 의원, 박욱영 의원, 서강식 의원, 김희신 의회사무국장까지 총 7명으로 구

성하였고,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재래시장 관리방안, 도시환경 관리, 안전대책 등 생활에 밀접한 현황 및 운영실태를 벤치마킹, 우리 구에 접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유점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손유희 의원, 조영진 의원, 서정학 의원, 김정현 직원까지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광 및 홍보정책과 타 분야와의 연계분야에서는 관광인프라 자원의 활성화 방안 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 및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구에는 어떻게 접목할지를 중심으로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최영곤 의원, 홍성운 의원, 김삼수 의원, 오경미 의원, 김성민 직원까지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역할 및 정책과제를 분담하여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연수기간 중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수일지를 기록, 일지 위주로 소감 발표와 토론회 개최 등 의원 위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연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6 규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정활동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및 별표2 규정에 따라 산출했으며, 환율은 3월 25일자 기준으로 1달러당 1,103.9원입니다.

경비는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연수효과에 대해서는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9조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시간 내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투명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선 위원님.

○김재선 위원

첫째는 경비가, 저는 이곳에는 안 가보고 방송으로만 봤는데 생각보다는 경비가 저렴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무슨 비행기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비행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경비 같으면 아마 외항사 비행기인 것 같아요.

경비로서는 그렇고, 제가 좀 미숙한 게 지역을 모르고 와서 미숙한데,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들이 다들 우려하셔서 안 가실 정도의 마음으로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했을 때 늘 다니던 중국이라든지 홍콩, 일본보다는 용기내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게 여행이거든요. 저는 일로서 많이 가니까... 이걸 의원님들이 가서 가지고, 하나의 목적의식으로 가지만 그 목적의식 속에 환상적인 풍광을 보는 것에서... 거기는 자연이 만들어진 도심일 거예요, 그렇죠?

○의정팀장 김명룡

예.

○김재선 위원

개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예전 유적지 그대로 있는데, 자연과 건물이라든가... 우리는 만들어 가는 상태이니까, 어떤 것이라도 해안가에 뭘 하신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이지만 멀리 떠나보셔서 많이 담아 오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것처럼 중국에 가네, 홍콩에 가네, 뭐 잡을 게 없네요. 전 아직도 방송으로만 봐서... 그렇지만 제가 가고 싶어 할 정도의 나라이니까 의원님들도 용기 내서 가시는 것도 괜찮다는 것, 만약에 질타가 있다면 일반인들도 관광을 가는데 의원님들이 식견이 넓어야지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해운대를 가꿀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원

김재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들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선 위원

다음에 꼭 보고를 하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이명원

감사합니다.

예, 홍순헌 위원님.

○홍순헌 위원

연수경비 산출에서 예년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요. 자비부담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실질적인 금액의 자비부담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옵션 별도로 해서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홍순헌 위원

그걸 여기에다가 명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우리 현재 예산이, 총 지급액이 30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300만원에 맞춰서 저희가 여행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홍순헌 위원

작년까지는 예산편성 방법이 구청예산 확보분하고 자기부담금을 각각 나누어서 산출을 했거든요?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이렇게 보면 일반 구민들은 100% 구 예산을 충당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명룡

저번에 저희가 심사할 때에는 자비부담금액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안에 넣었는데, 원칙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걸 넣었다가 이건 맞지 않다고 해서, 어차피 경비 안에서 가야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홍순헌 위원

그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쪽 같은 형식으로 취해 왔는데 그걸 올해 들어와서 뺐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집행했던 1일당 예산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그걸 오히려 숨기기 위해서 한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의정팀장 김명룡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1인당 의원님들 250만원까지, 작년에는 200만원까지였거든요? 그게 달라졌고, 여기에서 나머지 50만원은 국제화교류여비로... 50만원해서 300만원 맞춘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실제 여행경비가 이것보다 더 드는 부분은 확정된 금액이 나오기가 어렵고 갖다 와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비가 얼마 들지가 몰라요.

○홍순헌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300만원을 가지고 옵션을 빼고 나머지가 다 총당이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그렇다면 의원 개별로 내는 게 한 개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그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수예산 자체가 금액이 달라졌고, 우리 계장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이 300만원에 두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는 원 국외연수경비하고, 또 하나는 국제교류예산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비 부분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공유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금액을 기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순헌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을 가면 자비가 발생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자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그래서 그걸 오히려 적시를 해서 개인 의원별 자비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도... 전체 금액은 물론 늘어나겠지만 자비부담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요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그걸 한번 참고로 해보십시오.

○위원장 이명원

우리 홍위원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자비부담을 하면서까지 식견을 높이기 위한 국외연수를 고민했다는 부분을 보여주라는 말씀으로...

○홍순헌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그리고 예전과는 상당히 형태가 달라졌는데 개인별 역할 및 정책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를 강조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발칸3국 이쪽에 독립한지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 되지도 않고, 전체 역사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의 우리 해운대구와 비슷한 그런 의회 의정활동은 과연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의정팀장 김명룡

저희가...

○홍순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정팀장 김명룡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지방자치 부분도 갈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이미 다 협의가 됐거든요?

○홍순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광역단위의 의회는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우리처럼 기초단체 의회는 정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그런 부분이 발칸3국 말고라도 외국에 보면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구분이 모호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헌 위원

더더군다나 여기는 더 그렇다는 거죠.

의회 의정활동에는 이번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4년 전에 가봤기 때문에 거의 자연풍광... 그러니까 이게 유럽 역사 또는 아프리카나 중동 역사, 아시아문화권 거의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종교자체도 거기에는 불교만 빼고 나머지 종교는 다 들어와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양식도 여기에 나와 있는 두브로브니크, 이 지역만 TV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외에는 사실은 유럽이나 그런 데 가서 보는 건축물양식을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자연 풍광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와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만약에 벤치마킹을 한다면 해운대에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한번쯤... 두브로브니크 여기에 가도 실제로 케이블카가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요즘 워낙 떠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100% 여행 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의정팀장 김명룡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지역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TV에도 방영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재선 위원

제가 생각해도 조심스럽게 가실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 또 가서 가지고 홍위원님 말씀처럼 케이블카도 있지만 들어

올 때 생각해 보시고, 자연경관이 그대로 내버려놓아도 아름다운 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훼손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예.

○김재선 위원

그대로 아름답게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문화콘텐츠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 해 오셔도... 홍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너무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게 가시되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고 그쪽에 관련기관, 외교부와 얘기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만날 수 있는 미팅이라도 하셔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이쪽은 우리나라와 외교부 차원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아직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선 위원

아... 그러면 가서 시도가 안 되는가요?

○홍순헌 위원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김재선 위원

그렇죠.

○홍순헌 위원

보스니아 관광은 과거의 아픔, 슬픔 이런 현장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코스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바깥입니다.

아까도 부의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하루에 9시간 이상 버스를 타야 돼요. 굉장히 코스가 힘듭니다.

저는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김재선 위원

홍순헌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연수에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계획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전환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결과물이 결국은 보고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고서가 홍위원님 말씀대로 접목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나중이라도 요즘 다른 도시에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문제가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비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는 우리가 식견도 넓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의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서 정말 공무를 위해서 연수를 받는다는 의미로 보고서가 알차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좀 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시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고서로써 알차게 나올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이은경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란 위원님...

○문정란 위원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아까 홍교수님 염려해 주신 부분이 너무 애정 어린 말씀인 것을 다 아실 거라서... 저도 가는 지역이 어디인지 방금 알아서 잠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991년에 유고슬라비아 사회민주주의공화국에서 독립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절충한 형태의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읽었는데 EU나 세계은행 같은 데에서는 크로아티아 공화국 같은 경우 개발도상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경제국가라는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개발도상국인데 어떻게 해서 고소득이 가능한가, 그게 바로 관광수입으로서 그 나라의 전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사실은 이 지역 자체를 가시는 것이 해운대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

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실 내용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연 자체만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 강서구 을숙도에 새들이 철새도래지이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철새 하나를 보기 위해서 6~9시간씩 버스타고, 기차타고 가서 본다고 합니다.

멀고 힘들편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선택해서 특별한 경관이라든지 자연적인 모습들을 보는 것을, 사실은 여행을 많이 간 사람일수록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크로아티아라는 국가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명성이 실은 단지 자연경관 하나, 그것이 얼마나 크게 홍보가 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의미가 크게 느껴지는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환상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잠시 부의장실에 모여서 얘기했을 때에도 사실은 어떤 특별함은 만들어 가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상을 채워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이 외유성이다, 봄바람을 타고 의원들이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서는 얼마든지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한 푼 한 푼 굉장히 아끼는 듯한... 뭐 아끼고 계시니까 조심해서 집행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눈에서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바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풍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 될 지역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해운대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계곡도 있고... 이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영원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부족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도 많이 아껴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도 세금에 예민하시니까 이런 부분들만, 우리도 고소득경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선택한 관광지에서 의미 있는 어떤 걸 던져줄 수 있는 결과물, 이런 것만 된다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의 역할 같은 것이야... 사실은 뭐를 보고 오실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민당이 거기에는 여당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원님들 가셔서 보실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국외연수를 가면서 의원들이 오픈마인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에 대한 환상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느끼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조금 더... 문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부산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인천 쪽이나 송도 쪽으로 다시 뺏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부산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부산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의 관광자원은 정말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무국외연수비도 있지만 국제교류예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외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쨌든 세금을 쓰는 것이 또 예산도 잡혀 있는 것이고, 너무 거기에 위축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만큼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지만 분명히 그 주위의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개발도상국에 있으면서도 고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김재선 위원

이게 여기에 앉아있는 몇 사람만이 얘기를 해서 되지 않고, 어딜 간다든지 우리가 본다든지 시야를 넓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보시고 오셔서 만약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재래시장도 다 개개인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유럽은 보면 광장문화예요.

우리처럼 재래시장이라기보다 광장 같은 데에서 벼룩시장 같이 채소도 몇 시간만 팔고 치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재래시장을 가서 해운대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참 관찮습니다, 자꾸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에 계신 분들도 의식이 있으셔서 시장사람들도 가보고, ‘그러면 우리도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시장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저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갖다 오셔서 바로 될 수가 없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예산도 그렇고, 모든 마인드가 이쪽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가셔서 보시고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발전됐구나, 의식 자체가 이렇게구나.’를 알면 우리 같은 재래시장이 아니니까 진짜 볼만하고 깨끗하고 그런 건 보셔 가지고 재래시장 협의회 사람들에게도 ‘꼭 가서 유럽 재래시장을 한번 보라, 참 관찮더라.’고 하면 또 해운대시장이든 좌동재래시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보스니아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3국 중에 유일하게 EU에 가입돼 있는 나라는 보스니아... 아 미안합니다. 슬로베니아이고, 보스니아는 내전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부분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는 실질적으로 해안선을 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바로 건너편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에서 거기까지 넘어오는데 3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비롯한 지중해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해운대구의의회에서 가서, 가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 반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는 건 맞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한 개라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느끼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광이 아름답다.’ 뭐 그걸 보러 의회가 가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가야죠. 의회의 이름을

걸고 갈 것이 아니라...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부분은 좀 간과한 것이 여행사에서 지정한 코스만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해운대에서 접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내리는 데 보니까 뭘 헨이네요?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뮌헨공항에 내려서 잘츠부르크로 비행기 타고 바로 이동할 거 같거든요?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뮌헨 같은 데 한 번 가기 힘들잖아요? 언제 한 번 가겠습니까? 뮌헨 같은 데에서 하다못해 반나절이라도 도심을 한번 돌아보면, 현대와 고대, 중세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로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잘츠부르크는 언제 가겠습니까?

오스트리아에 갈 기회가 없잖아요? 이럴 때 잘츠부르크도 적어도 한나절이라도 일정을 가지고 가면... 이런 도시는 실제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몇 백년 앞서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예.

○홍순헌 위원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뜻이지, 가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잘츠부르크나 뮌헨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리 정비해 놓은 걸 보면 입이 짹 벌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마린시티 안에 한번 가보세요. 전주나 신호대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걸레짝이지,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아주 특이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거 사진 하나 찍어 가면 토픽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 천혜의 도시, 부산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마린시티 거기를 한번 가보시라는 거죠.

이런 도시를 갈 때 한번 보고 오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잘 갔다.’ 의원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고 갔다 와서 보고서 쓸 것도 많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간판이라든지 거리정비라든지 보도형태라든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광장형태라든지 가로수의 형태라든지 도시색채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에 청소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재선 위원

의원님들이 지금 다 분담을 맡으셨잖아요? 그냥 분담이 아니고 도심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가기 전에 그 시 자체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그때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보고 하시기도 좋고 조그마한 데서 스치고 갈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잡는 거죠. 그것이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저는 잘 모르는데 두브로브니크 거기는 이슬람교이죠?

○홍순헌 위원

이슬람교가 아니고 두브로브니크는 천주교입니다.

○김재선 위원

아, 그러면 그 한 나라에 이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헌 위원

있습니다. 혼재합니다. 가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김재선 위원

그걸 제가 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홍순헌 위원

러시아 쪽 정교도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고, 신교도 들어와 있고... 불교 빼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오늘도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슬람교가 한국에 워낙 많다보니까, 부산에 수산식품의 이슬람교 할랄 인증을 위한 센터를 개소하고 수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조그마한 해운대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천주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같이 있으면, 우리 해운대구민 중에 이슬람교도가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할애해서... 이슬람교도가 안 드러나도 해운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김명룡

예.

○김재선 위원

그런 데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고마운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광장문화라든지 건물 하나 그런 걸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현 위원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해운대에도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크로아티아든 세르비아든 보스니아든 갔을 때... 세르비아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옛날 유고 때 대통령 별장들이 그쪽에 다 있을 정도로... 아까 무슨 호수입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블레드...

○홍순현 위원

거기 정말로 아름답거든요. 거기는 가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제일 크게 와 닿았던 게 작은 호텔들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 같으면 외국인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광호텔, 특급호텔이 조선비치호텔도 있죠, 그랜드호텔도 있죠...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행법 때문에 파라다이스에만 돼 있지만 어차피 외국인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특구라고 한다면 그런 호텔들의 규모는 소형화하더라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구경을 하고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외국인이 여기에 와서 솔직히 여름에 해수욕장에 해수욕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해운대는 숙박개념으로 오는 것이지, 해운대에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오는 사

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벅스코 때문에 여기 호텔이 성황이 되는 거지, 벅스코가 없으면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가, 문광부 차원에서 카지노도 자율화 하겠다고 나설 때 해운대가 기초단체로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나 법적 여건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오시라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우리 해운대 쪽에 외국인들이 지금 참 많잖아요?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고, 우리 아이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와놓으니까 독일 친구들이 오면 클럽을 주로 가더라고요. 해운대는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이들이 해운대문화를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게 클럽문화더라고요. 우리 홍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순간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의원님들이 카지노 들어서 혹시나...

(장내 웃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에 하도 그런 게...

○홍순현 위원

아... 거기는 구경하고 오라는 거지 하고 오라는 게 아니고...

(장내 웃음)

○김재선 위원

설마 하시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구경만 해도, 요즘은 어디만 가도...

○홍순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을 달고 가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김재선 위원

부의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절대 금하시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명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선 위원

홍준표 도지사님도 그렇게 가가지고... 다 예민할 때인데...

○이은경 위원

그게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하도 요즘에 너무...

○홍순헌 위원

목적에 적시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은경 위원

예.

○위원장 이명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다 알아 듣고...

(장내 웃음)

저희들이 놓친 것 내지는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지역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갔을 때 보는 부분, 아까 원헨이라든지 잘츠부르크를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반영을 좀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순헌 위원

어차피 가는 김에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위원장 이명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부분도 카지노나 이런 부분은 현실성은 얼마나 있을지... 현행법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체감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광장문화라든지 도심관리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신 부분을 의원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갔다 오면서, 결국 이 심의위원회가 주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도 주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정란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외국인들을 위한 카지노 부분에서 세수를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한데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돈을 쓰러오는 분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해운대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칸반도 이런 쪽이 사실은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밀집적으로 있고 역사, 문화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조도 복잡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의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있는지... 물론 역사가 그렇게 조화롭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해운대에서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너무 많은 중복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실 만족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면... 외국인들이 같이,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아우르는 연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명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문화 말씀을 하셨죠?

○문정란 위원

아... 그랬었나요?

○위원장 이명원

홍콩에 갈 때도... 기억이 나는데, 여하간 너무 많은 숙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대신에 지역부분에 대해서 홍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을 꼭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여하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연도 넓힐 뿐 아니라 집중도도 높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신부분은 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높일 뿐 아니라 집중도도가 높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위원

갓다 오셔 가지고 문서로도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목을 하려면 이것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갔는데 참 좋더라, 너희 협의회에서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해 줄 수 있는 것, 갓다 오셔서 담아놓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다시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재래시장도 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 위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가봐라, 요즘은 그냥 앉아있는 시대가 아니다, 가봐야지 그쪽 재래시장을 접목해서

우리 해운대의 재래시장도 세련 되게, 외국인이 와서도 해운대 재래시장을 가보자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보고 오셔서 권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명원

그러면 김재선 위원님, 이렇게 하죠? 오늘은 저희들 연수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갖다 와서 저희들이 1차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의원님 몇 분 더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때 좀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김재선 위원

예, 잘 다녀오십시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15년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종료)

※ 참고사항

의 석 배 치 도

(2015. 3. 27)

사무직원

위원장
이 명 원

홍 순 현

임 말 숙

정 성 철
(불참)

김 재 선

이 은 경

문 정 란